



프로축구 승부조작 전직 K리거 정종관 자살 충격

스포츠동아 2011년 5월 31일 화요일 10판 제981호 | 02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축구인으로서 부끄럽고 괴롭다. 내가 시킨 일인데 두 사람이 조사받게 돼서 미안하다.” 정종관 유서 중에서



승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 K리거 정종관의 자살로 K리그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29일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수원 삼성전.

인천 | 국경원 기자 onecul@donga.com 트위터 @k1sonecul

“시킨대로 한 그들에게 미안”…유서 언급 2인은 누구?

전직 K리거 정종관 자살 충격

“모두 내가 시킨 일인데…” 실명 거른 검찰 조사중인 브로커·선수 가능성 커

구축 브로커 “정종관 깊이 관여” 진술 검찰 수사 부담감에 극단적 선택한 듯

전직 K리거가 승부조작 사실이 부끄럽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30일 오후 3시경 현재 챌린저스리그(K3) 서울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공익근무 중인 정종관(30)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호텔 객실에서 사망해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종관은 목을 맨 상태였으며 객실 내 테이블에는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1장과 호텔 메모지에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끄럽고 괴롭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의학 박사와 검시한 결과 외상이 전혀 없고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 압박

정종관은 이번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었다. 창원지검은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정종관이 4월6일 러시엔캐시업 2경기의 승부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정종관은 현재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받고 있는 K리그 소속이 아닌 3부 리그격인 챌린저스리그에서 뛰고 있다. 직접 승부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검찰은 구속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했거나 이들 브로커와 함께 아예 처음부터 승부조작에 참여할 선수들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종관의 신병을 확보해 직접 수사하기 위해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였다.

정종관이 21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와 마산공고 축구부 선수배 사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FC 골키퍼 성모 씨와는 전북 현대에서 2003년부터 2년 간 함께 선수생활을 했다.

●유서에 밝힌 2명은 누구

정종관은 검찰 수사마가 잡혀오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긴 유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승부조작과 관련해 축구 인으로 부끄럽고 괴롭다는 내용과 함께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다 시킨 일인데 두 사람이 조사받게 돼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에 언급된 두 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현재 창원지검



K리그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챌린저스리그 서울 유나이티드 정종관이 30일 오후 서울 신사동 모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에서 조사받고 있는 브로커나 선수 중 2명일 가능성이 크다.

●언제부터 승부조작 가담했다

정종관이 언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전북에서 뛰다가 병역비리로 임의탈퇴 된 2008년 초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정종관은 K리그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고도 그라운드를 잊지 못했다. 병역비리로 실형을 산 뒤 곧바로 지인의 소개로 2010년 초, 챌린저스 리그 서울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그러나 경기는 물론 훈련 때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 유나이티

드 김강남 감독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종관이 가진 기량이 아까워 여러 차례 훈련에 나오라고 전화를 했지만 잘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정종관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올 2월 팀 훈련에 합류했다.

김 감독은 “다시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고 회상했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해 몸이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김 감독은 개막전에 후반 교체 투입해 감각을 익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이후로 또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정종관은 누구?

올림픽 대표 유망주 출신 병역비리로 K리그서 퇴출

승부조작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로 자살을 선택한 정종관은 축구 유망주 출신이다.

마산중-마산공고-숭실대를 거친 그는 숭실대 재학 중이었던 2003년 올림픽대표에 발탁돼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다. 2004년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4년간 총 79경기에 출전해 6골8도움을 기록하는 등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7년 말에 터진 병역비리 사건으로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 정종관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어깨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의탈퇴신분이 된 정종관은 K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

이후 행적을 감춘 정종관은 지난해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K3(챌린저리그) 서울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활동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한 경기를 뛴 이후 제대로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고, 경기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서울 유나이티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유나이티드는 불성실하게 선수생활을 하는 그를 퇴출시킬 예정이었다.

전북 구단의 한 관계자는 “늘음이 뛰어난 선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정종관이 병역비리로 프로생활을 마감하게 됐는데 승부조작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다시 주목받는 ‘인천 GK 윤기원 자살’

“승부조작 연루돼 고통” 소문 부친 “진실 밝혀 달라” 편지

K리그 인천 골키퍼로 활약했던 고(故) 윤기원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 출신 정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종관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부끄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또 다시 윤기원의 사망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기원의 부친 윤희탁(47) 씨는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요즈음 떠돌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자식의 사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윤 씨는 인천 구단, 서포터스, 허정무 감독에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항간에는 윤기원 사건이 중국에 기반을 둔 불법 배팅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연계된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해졌다. 최근 한 제보자는 “윤기원이 좋지 못한 사건 탓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단 고 윤기원의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 4부는 ‘여자 친구’ ‘주전 아닌 백업에 밀려난 것에 대한 심적 고통’ 등 선수 개인의 사생활로 인한 자살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윤 씨는 “아직 경찰서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노트북의 인터넷 접속 내역, 휴대폰 통화 내역, 통장 계좌 내역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결과는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SNS 타고 급속 팽창…3조원대 시장”

■스포츠토토가 말하는 불법토토 실태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축구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토토 때문이다. 불법 토토의 실상을 알아본다.

현행법상 스포츠토토가 발행하는 축구토토를 K리그 현역 선수들이 구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법 배팅 사이트를 접속하는 게 이스가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내 유일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자인 스포츠토토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배팅 사이트는 약 5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무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측은 “최근의 불법 도박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스포츠 배팅 사이트 신고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7년에는 40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2008년 976건, 2009년 5,395건, 2010년 7,915건 등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 사이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하며 문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전 시티즌 선수 3명이 모자라 얼굴을 가린 채 인솔자를 따라 청원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3명 모두 구속됐다. 창원 | 연합뉴스

발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기존 회원이 제3자를 소개할 경우 손실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타크 등 e스포츠까지 배팅 종목 해외서버 단속 애로…처벌도 경미

불법 배팅 사이트는 합법업체와 다른 불법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과 수많은 게임방식을 고안해 판매하고 있다.

리그 대상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 뿐 아니라 e스포츠로 분류된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대상으로 배팅할 수 있다. 지난해 불거졌던 e스포츠 승부조작도 불법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단속은 쉽지 않다. 서버 기반을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2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해 한 사이트가 단속되면 다른 사이트를 곧바로 개설해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다.

처벌 정도가 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속 및 징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또 관련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모두 모니터링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정종관 소속 서울유나이티드 입장

“개막전 후 연락 두절”

자살한 정종관의 소속팀 챌린저스리그(K3리그) 서울유나이티드가 3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종관은) 지난해 입단 이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서 2011시즌에 앞서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올해 초 본인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올 시즌 팀 등록을 하게 됐다. 2월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개막전(3월 5일 전주EM전) 이후 몸이 좋지 않다고 통보 후 따로 재활을 하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구단에서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주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지에 찾아갔지만 선수를 만날 수 없었다. 이번 주에 훈련에 나오지 않는 선수들을 상대로 전반기 선수단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편집 |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